

# 한국 관광농원 실태 조사분석과 농촌관광 발전전략 연구\*

박호균\* · 류성호\* ·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Study on Korean Tourist Farms and Rural Tourism Development Strategies

Park, Ho-Kyoun\* · Ryu, Sung-Ho\* · Lee, Seong-Woo\*\*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적 요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관광업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다. 다른 전통적인 농촌 경제활동에 비해서 관광업은 비교적 경쟁이 심하고 시장에 대해 민감하다. 우리 나라 농림부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력이 있고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을 둔 농의소득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농촌관광을 개발해왔으나 비교적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과 사경제 부문의 협력을 농촌관광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기능과 자원배분 기능의 비대화는 오히려 농촌관광 발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농촌지역에서의 관광개발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공공부문과 사경제 부문의 협력과 조화를 개발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나아가 농촌관광의 개발은 농림부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 이외도 농촌개발의 다양한 문제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이고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I. 서론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며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의 공간적 수요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비교적 경제발전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이, 환경 파괴, 자원고갈, 토지와 자연경관 훼손 등에 대한 대안

으로 새롭게 공간이 활용되도록 주목받는 것이다. 농촌의 생산기반인 토지를 생산기능이 퇴색된 제반상황에 맞게 도시 거주자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바꾸어 농촌 공간의 변화 과정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견해는 상반되지 않는 데, 농촌사회의 공간적 변화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고 정부나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

\*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6집 1호 pp.45~73, 2001.6.

다. 농촌공간의 사회적 효용을 증시하고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개입이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의 공간적 수요의 구체화와 진행과정은 해당 사회 구성인들의 상호작용과 갈등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선진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급격히 시작된 관광업의 발달은 농촌과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고 농촌 편의시설과 농촌공간의 매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1960년대에 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되며 개발계획자들이 농업부분의 실업증가와 소득증대의 대안으로 관광업을 주목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이 관광업이 이용되는 것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한 위기는 환경 생태계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자연공원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세 부류의 이해 당사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연보호주의자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지닌 생태보호자들, 그리고 개발론자(정부 또는 정당 관계자)를 들 수 있다. 농촌사회의 주민들이나 대표자가 초기에는 배제되다가 상황에 따라 이해를 함께 하게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기반을 둔 사회적 정치적 세력들이 농촌공간의 미래와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주민이 합류하는 양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농촌공간이 사회적 생산에서 한계적 역할을 하는 한편 도시의 위락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양상을 지니게 되고 농업의 쇠퇴와 환경보존의식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배경에서 관광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레저기능을 위한 공간에 대한 경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자 농촌지역의 대량관광 피해방지와 자연보호라는 당위성으로 농촌공원의 계획, 허가, 진행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 농촌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를 지닌 사회 세력들은 몇 가지 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1) 농촌 세계를 다른 형태의 모습을 지닌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2) 대규모 관광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현재 농촌 사회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3) 농촌이 도시사회의 환경과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차치

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Mormont, 1987).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러한 도시의 농촌 공간 수요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농촌관광(Rural Tourism), 프랑스에서는 관광부에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 그리고 농업 관계기관에서는 농업관광(Agri-Tourism), 영국에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 등으로 불린다. 개념상으로 농산물, 농촌경관,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농업관광, 전원을 활용하는 녹색관광, 농촌지역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관광 전체를 농촌관광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1) 전형적인 농촌이나 산림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관광, 2)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나 그 지역주민, 그리고 3) 도시주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생활, 문화자원 등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야마자키, 1999). 한국에서는 농촌공간과 농촌문화에 대한 관심과 관광에의 활용방식이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형적인 유럽의 경우에 서처럼 사회적 갈등과 구조변화를 맥락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서서히 발전하였다기보다는 개발주체 특히 농업정책 입안자들의 주도권 아래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진행양상과 과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농촌관광의 주 기능과 목적은 농어촌 농외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994년 농어촌 정비법 제 66조에 규정된 농어촌 휴양산업에 1) 관광농원사업, 2) 농어촌 휴양단지, 3) 주말농원사업, 4) 농어촌 민박사업이 규정되어서 이제까지 중점 육성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관광농원사업의 통계자료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농촌관광 발전의 전략을 돌아보는 실증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한국 관광농원사업의 경험과 선행연구들은 농촌관광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과학적인 분석과 실증적인 의미도출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태적이며 기초통계처리 수준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바탕을 지닌 통계분석 모델을 이용하고, 통계자료의 추적

조사를 통해 동태적 추이를 함께 분석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실증적인 논거를 위해 농외소득증대 사업으로 시행되는 관광농원의 배경과 실태를 조사하고, 2) 분석의 모델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동태적으로 통계분석하며, 3) 조사 분석한 결과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관광농원 사업의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한국 농촌관광의 발전전략을 이론과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관광농원 분석은 연구의 범위에서 편의상 제외시킨다. 중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자 선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로 하향식으로 추진된 관광농원 개발사업과 함께 다루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농촌관광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어 미래 농촌사회의 귀중한 소득원인 농촌관광 발전전략 연구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 II. 관광농원 개발사업 실태 조사분석

### 가.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배경과 실태

농어촌 휴양사업 중에서도 관광농원사업은 농촌관광개발사업에서 금액으로나 정책 우선 순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 12개 관광농원개발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1998년까지 약 1167억 원이 지원되어 전국에 약 491개소가 지정되고, 1989년 휴양단지조성이 시작되었고,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유승우, 1999). 1996년 관광농원 경영실태분석(유승우 외, 1997)에 의하면

표 1. 전국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

구분	1996년 말 기준 (1)				1998년 말 기준(2)				등급분류 1999 (3)			조사결과 2001 (4)				
	지정	취소	합계	호수 지원액 (백만원)	지정	취소	조성/운영 참여호수	지원액 (호)*1 (백만원)	모범	특별관리	합계	지속	중단	합계		
광주	1		1	10	50	1	1	1	50	1	0	1	0	1	1	
대전	1		1	19	48	1	1	19	48	0	1	1	0	1	1	
울산	0		0	0	0	2	2	9	627	1	0	1	1	0	1	
경기	32	10	22	44	6,217	33	12	21	42	6,567	15	6	21	18	5	23
강원	53	13	40	229	8,952	69	17	52	327	13,862	29	10	39	28	9	37
충북	37	6	31	156	7,138	43	9	34	149	9,962	26	4	30	23	8	31
충남	51	5	46	199	12,465	61	7	54	247	17,560	40	1	41	32	8	40
전북	33	9	24	86	6,945	42	10	32	124	9,795	22	3	25	20	3	23
전남	72	11	61	206	12,962	88	12	76	287	18,800	52	8	60	40	21	61
경북	54	10	44	175	11,386	61	15	46	176	15,585	38	6	44	27	9	36
경남	53	9	44	190	13,801	64	10	54	211	17,690	36	5	41	24	11	35
제주	20	2	18	76	5,024	26	2	14	161	6,213	13	3	16	9	5	14
전국	407	75	332	1,460	84,988	491	94	397	1,753	116,759	273	47	320	222	81	303

(1) 유승우 외, 1997, p. 34

(2) 유승우, 1999, p. 10

(3)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1999년 관광농원 등급분류 결과 (이후 새로 지정된 관광농원은 통계에서 제외됨)

(4) 2001년 3월 현재 전화면담 결과 (폐쇄한 경우나 단순히 음식점 역할만 하는 경우 모두 비지속적 관광농원으로 분류함)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손익분기를 달성한 관광농원이 316개소 중 37개소에 불과하고, 중간에 지정취소 또는 자진 탈락하는 경우가 35% 가량 되고, 1998년 IMF 이후에는 더욱더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가 취약해져서 도산 상태에 이른 관광농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1998년 IMF 이전에도 실태조사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으며 IMF 위기로 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추이와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1을 살펴보면, 1996년까지 407개소가 지정되고 75개소가 취소되었으며, 1998년 말까지 84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94개소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농림부 관광농원 등급분류 자료에 따르면, 77개소가 순감소하고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전화 실태조사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80여 개소가 2001년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농원의 개발 목적이 1991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 추진요령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1)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2) 농어가 소득에 기여하며; 그리고 3)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92년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는 위의 세 가지 목적 외에도 자원의 생산화, 지역개발촉진,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이 추가되어 있다(유승우, 1999). 관광농원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개발 유형과 규모, 참여자격, 대상지역, 지구 지정, 그리고 자금지원 등의 내용이 변해왔다. 지난 15년간의 관광농원개발사업은 그 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농촌관광의 실체와 도시수요자와 농촌 지역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연결고리와 실증적 자료를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농촌공간과 지역문화가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 나. 선행연구

관광농원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정책추진차원에서 정책의 연구

자료로써 관광농원의 실태와 경영상태, 그리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로 유승우(1989, 1998), 유승우 외(1997), 류선무(1995), 서종혁 외(1991), 농협중앙회(1993) 등이다. 두 번째 연구 방향은 농촌관광 수요자 분석과 선호도를 분석하는 연구로써 류선무(1991), 한국관광공사(1996), 등이다. 정책을 추진하고 관광농원을 개발시키는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분석과 추이, 그리고 정책의 도구인 개발유인 요소와 지원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온 관광농원사업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 관광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품개발과 수요자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2) 비수기나 성수기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시설부족 현상 및 서비스 한계와 비효율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3) 초기 및 운영자금의 제한으로 개발확대 및 운영 활성화가 문제되고 있으며, 4) 관광농원 개발시설이 지역개발계획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5) 경영기술의 한계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유승우, 1997). 더 구체적으로는 언급하면, 1) 정부에서 농촌관광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다보니 관광의 다양하고 변화 있는 수요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유흥업, 숙박업, 연수사업 등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지 못한 점이 있고, 2) 관광농원의 규모가 커지고 개발비용이 많아짐으로써 사업의 주체가 비농민들로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일부 기업가들이 정부 특혜를 받아 설립, 운영하는 양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이나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관광농원 사업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기여보다 정부의 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3) 관광농업 개발과정에서 인적 개발보다는 물적 개발이 강조되고 자본 동원능력의 유무가 사업주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 관광농업이 속성상 지녀야 하는 농업과 관광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주체의 경영능력이 양성되지 못하였다는 점, 4) 관광농업은 주민들의 창의성과 노력이 지속된 성과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적인 측면이 강하여 자생조직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5) 농촌 관

광의 개발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도록 정부지원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중혁, 1995). 이제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농촌관광의 결실이 소수의 지역주민이나 외부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일반적이었고, 농촌공간과 농촌문화의 소유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에 따라서 개발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역주민 사업능력 향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민상기 외, 1995) 또한 주목할 만하다.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취소 또는 사업 중단하는 경우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엄격한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에 인력이 동원되어 신규 지정된 관광농원이 해마다 약 10%씩 중단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관광농원이 파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의 국고손실과 기회비용, 비경제적 외부효과는 본 연구에서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중단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성은 분석되어야 한다. 유승우 외(1997: 34-35)는 취소되는 농원의 이유가 개발의욕 부족이 전체 취소 농원의 44%이고 부실운영이 25.3%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1988에서 1990년 사이에 지정된 농원 중에 전체 취소농원의 40%를 차지하며 이는 비 농민과 다른 지역 이주자의 사업참여가 한시적으로 가능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개발의욕 부족이나 부실운영이라는 이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일 뿐더러, 정책반영에는 막연한 근거이다. 따라서 관광농원이 지속성(Sustainability)을 지니는 현상을 추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필요하며 데이터를 통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 III. 분석방법 및 결과

#### 가. 방법론

개별 관광농원이 지속성을 지니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관찰치로 나타나는 종속변수가 1 이나 0 이고, 여러 독립변수들이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확률적 함수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로짓(Logit)이나 프

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는 두 집단간의 (K-1)개의 변인  $x_{ij}(j=2, \dots, k)$ 과 상수항  $x_{i0}$  그리고 n개의 관찰치 수에 따라 구분되어짐으로서 공식화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한가지에 대한 결과의 모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i^* = x_i' \beta + \mu$$

$$y_i = 1 \quad \text{if } y_i^* > 0 \quad (1)$$

$$y_i = 0 \quad \text{otherwise}$$

$y_i$ 는 잠재적 변인  $y_i^*$ 에 의해 결정되는 i번째 개인의 반응에 대한 지표이고,  $\beta$ 는 k 회귀계수의 벡터,  $\mu_i$ 는 오차항,  $x_i = (x_{i1}, \dots, x_{ik})$ 이다. 식(1)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text{Prob}(y_i=1) = \text{Prob}(u_i > -x_{ik}\beta)$$

$$= 1 - F(-x_{ik}\beta) \quad (2)$$

여기서 F는 u에 대한 누적분포함수이다.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y값들은 식(2)에 의해 확률을 가진 이항(Binomial)과정으로 나타나고,  $x_i$ 에 대해 반복적인 시행을 하여 아래 식(3)을 얻을 수 있다.

$$L = \prod_{y_i=0} F(-x_i' \beta) \prod_{y_i=1} [1 - F(-x_i' \beta)] \quad (3)$$

따라서, 만약 관광농원을 지속하고 있으면, s라는 값을 가지고, 중단했다면 u값을 갖는다면,  $Z_{gi}$ 는 지표변인이 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hi_{gi} = \text{Pr}(Z_{gi}=s | x_i), \quad \text{단, } g=s, u \quad (4)$$

이상 식(1)-(4)에서  $\mu$ 가 x에 독립적인 정규분포라고 가정한다면 Binary Probit을 사용한 관광농원 지속 여부 모델은 다음과 같다.

$$\Phi(\varphi_{gi}/\varphi_{si}) = \Phi(x_i \beta_g / \sigma_\mu), \quad g=s \quad (5)$$

$\Phi$ 는 표준정규누적밀도함수이고,  $\sigma_\mu$ 는  $\mu$ 의 표준편

차이며,  $\beta_g = (\beta_{g1}, \beta_{g2}, \dots, \beta_{gk})$ 는 k 회귀계수의 벡터이다. 독립변수의 변인들은 표 2에 정리되어 있으며  $\beta_i$ 는 각 변인들의 계수이다.

나. 통계자료 및 변인

데이터는 전국 320 개소 관광농원에 대한 농림부 1999년 등급분류 평가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전

표 2. 분석에 사용한 변인 설명

변 인 명	코드	변 인 설 명	
지속여부	sus	0:중단, 1:지속	
농외소득	x1	13점	
	참여농가	x11	5점
	호당소득	x12	4점
	판매액	x13	4점 (1:1천-2천, 2:2천-3천, 3:3천-4천, 4:4천이상)
조성적정성	x2	33점	
	작목입식면적	x21	5점(1:40-50%, 2:50-60%, 3:60-70%, 4:80-90%, 5:80%이상)
	작목입식다양성	x22	5점(2:2중, 3:3중, 4:4중, 5:5중이상)
	작목입식특색성	x23	6점(2:1중, 3:2중, 4:3중, 5:4중, 6:5중이상)
	영농체험활용도	x24	6점(2:20-30%, 3:30-40%, 4:40-50%, 5:50-60%, 6:60%이상)
	시설물	x25	5점(1:40-50%, 2:50-60%, 3:60-70%, 4:80-90%, 5:80%이상)
	자연환경조화성	x26	3점(1:보통, 2:우수, 3:탁월)
	주민호응도	x27	3점(1:보통, 2:호의적, 3:적극적)
입지조건	x3	12점	
	주변관광자원	x31	3점(1:1개소, 2:2개소, 3:3개소이상)
	교통여건	x32	2점
	배후도시	x33	5점
	기타	x34	2점(1:보통, 2:우수)
홍보이벤트	x4	5점	
	홍보실적	x41	2점(1:2건, 2:3건이상)
	이벤트	x42	3점(1:2건, 2:3건, 3:4건이상)
재무상태	x5	10점	
	자기자본	x51	5점(2:30-40%, 3:40-60%, 4:60-80%, 5:80%이상)
	상환능력	x52	5점(1:110-130%, 2점:90-110%, 3점:70-90%, 4점:50-70%, 5점:50%이하)
수익성	x6	15점	
	투자수익	x61	5점(1:5%미만, 2:5-8%, 3:8-10%, 4:10-13%, 5:13%이상)
	매출증가	x62	5점(1:5%미만, 2:5-10%, 3:10-15%, 4:15-20%, 5:20%이상)
	경영성과	x63	5점(1:그외, 2:전년도흑자, 3:최근2년흑자, 4:최근3년흑자, 5: 3년흑자이고 순이익증가)
대표자	x7	12점	
	신용도	x71	8점
	경영능력	x72	4점(2:보통, 3:우수, 4:탁월)
등급	평가등급00	grad	1등급(85이상) 2등급(84-70) 3등급(69-60) 4등급(59이하 특별관리)

국 320개 관광농원 1999년 농림부 “등급분류 평가 기준표”에 따른 변인들이 표-2)와 같이 독립변수로 개별 관광농원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모델의 가설이다. 변인들은 농림부의 평가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모두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3개의 세부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농림부 등급평가는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순수한 평가점수에 점수외적 가산점이 합산되어 실제 관광농원의 등급으로 행정처리의 근거가 되는 변수이다. 평가의 타당성과 효율성 또한 실증적으로 이 모델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모집단에 대해서 2001년 2월에 전화 설문문을 통하여 2월 기준으로 영업을 중지하였거나 지속을 종료한 관광농원을 파악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관광농원이 222개소이고 취소한 관광농원이 81개소이며 17개소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삭제하고 모두 303개소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본적인 빈도분석과 함께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빗 모델로 통계처리 하였다.

모든 가용한 변인을 지속성 여부 예측의 측정 수단으로 사용할 때 각 변인들간의 공선성은 추정된 계수의 해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관 계수 척도에 의한 대략적인 값은 0.8이 사용된다

(Ramanathan, 1992). 그렇지만, 이 척도는 변인간에 낮은 상관관계에 있더라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인 선택의 기준 척도로서 충분하지 않다(Mansfield and Helms, 1982).

본 연구에서는 지속여부 회귀 모델에 대한 변인 선택 기준으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변인팽창계수는 각각의 VIF가 1.0인 직교 데이터보다  $\hat{\beta}_j$ 가 몇 배가 더 큰 다중공선성 데이터인지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지표이다. 이 통계방법에 의한 대략적인 측정값은 10이며(Chatterjee and Price 1991; Kennedy 1992), 본 연구에서도 이 값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인변인과 지역변인의 선택은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추출하였으며, 최종 분석 모델에서 사용한 변인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어 사용하였다(<표-2>참조).

다. 조사 분석 결과 및 논의

표 3은 7개 대별 항목들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홍보실적 및 이벤트와 대표자 능력이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에서 홍보활동과 관광상품의 개발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표 3. 프라빗 항목별 총점 결과

변 인	변 인 명	계 수	S.E
INTERCEPT		-1,0629*	0.5981
X1	농외소득효과	0.0073	0.0336
X2	농원조성 적정성	0.0082	0.0163
X3	입지조건	0.0015	0.0511
X4	홍보 및 이벤트	0.1297**	0.0584
X5	재무상태	-0.0014	0.0463
X6	수익성	-0.0172	0.0290
X7	대표자능력	0.1218**	0.0507
N : 303			
Intercept only		353.832	
Intercept and Covariate		331.150	

\*  $p<0.1$     \*\* $p<0.05$

또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에서 홍보 및 이벤트라는 변인은 따라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관광농원 경영자의 관광에 대한 이해의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관광의 맥락에서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관광농원이 지속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관광농원을 좀 더 홍보해야 하고 공공기관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각종 인쇄 홍보물, 간판, TV,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이벤트 기획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표 3의 결과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7개 대별항목보

표 4. 프라빗 개별 항목별 결과

변 인	변 인 명	계 수	S.E
INTERCEPT		-1.3227*	0.7525
x11	참여농가	-0.1499**	0.0712
x12	호당소득	0.2407**	0.0976
x13	판매액	-0.0308	0.0868
x21	작목입식면적	0.1054	0.0721
x22	작목입식다양성	-0.1578*	0.0957
x23	작목입식특색성	0.1854**	0.0874
x24	영농체험활용도	-0.0657	0.0666
x25	시설물	-0.00448	0.075
x26	자연환경조화성	0.0293	0.1468
x27	지역주민호응도	-0.0342	0.1638
x31	주변관광자원	0.3547*	0.2048
x32	교통여건	0.2032	0.1636
x33	배후도시	-0.0387	0.0823
x34	기타입지조건	-0.1937	0.2516
x41	홍보실적	0.5896**	0.1678
x42	이벤트	-0.0941	0.1095
x51	자기자본	-0.1707	0.1104
x52	상환능력	0.0804	0.0730
x61	투자수익	-0.1556*	0.0835
x62	매출증가	0.0378	0.0856
x63	경영성과	0.0297	0.0875
x71	신용도	0.1555**	0.0688
x72	경영능력	-0.0337	0.1398
grade	등급분류결과	-0.0017	0.1863
N : 303			
Intercept only		353,832	
Intercept and Covariate		299,009	

\* p<0.1

\*\*p<0.05



다 24개 개별변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요약되어 있는데,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한 변인들로는 참여농가 수, 호당 소득, 작목입식 특색성, 홍보, 경영자 신용도이다. 참여농가 수는 부의 계수를 유의미하

게 지녀 관광농원에 참여농가수가 많을수록 소멸할 확률이 많고, 호당 소득과 특색성은 기대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홍보가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 추가로 밝혀지고, 경영능력보다는 신용도가 더

표 5. 관광농원 평균값과 표준편차

변수	지속(221)		중단(82)		전체 (302)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x1	7.76	2.84	7.16	2.52	7.59	2.76
x11	3.11	1.36	3.23	1.23	3.14	1.32
x12	2.46	1.16	2.01	1.04	2.33	1.14
x13	2.19	1.25	1.91	1.26	2.11	1.25
x2	22.03	5.81	19.93	6.02	21.45	5.93
x21	2.84	1.42	2.60	1.28	2.77	1.38
x22	3.36	1.16	3.12	1.41	3.29	1.23
x23	4.02	1.43	3.40	1.60	3.85	1.50
x24	4.20	1.69	3.95	1.82	4.13	1.72
x25	2.80	1.44	2.44	1.45	2.70	1.45
x26	2.33	0.73	2.10	0.78	2.27	0.74
x27	2.50	0.64	2.29	0.78	2.44	0.68
x3	10.12	1.61	9.76	1.861	0.02	1.69
x31	2.90	0.41	2.72	0.61	2.85	0.48
x32	1.76	0.51	1.67	0.57	1.73	0.52
x33	3.65	1.21	3.65	1.12	3.65	1.18
x34	1.83	0.40	1.76	0.43	1.80	0.41
x4	3.50	1.48	2.72	1.74	3.29	1.59
x41	1.58	0.60	1.17	0.77	1.46	0.67
x42	1.92	1.05	1.55	1.12	1.82	1.08
x5	7.82	1.83	7.40	2.21	7.70	1.94
x51	4.16	0.86	4.06	1.01	4.13	0.90
x52	3.65	1.37	3.34	1.52	3.56	1.41
x6	8.33	3.38	7.44	3.43	8.08	3.40
x61	2.71	1.45	2.52	1.49	2.65	1.46
x62	2.80	1.36	2.43	1.34	2.69	1.36
x63	2.82	1.30	2.49	1.29	2.73	1.30
x7	10.04	1.86	9.04	2.02	9.76	1.95
x71	6.70	1.43	5.98	1.58	6.50	1.50
x72	3.36	0.87	3.05	0.74	3.27	0.84
sus	1.00	-	0.00	-	0.73	0.45
total	69.60	12.45	63.44	13.09	67.93	12.86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용도는 단위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을 판단하는 척도이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의수준  $p < 0.1$ 에서 의미가 있는 변인들은 다양성, 주변자원, 투자수익이다. 잠복입식 다양성이 부의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관광농원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투자나 관리비용이 관광농원 지속성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변관광자원, 교통여건, 배후도시, 시설물, 작목입식면적, 등의 변수들은 관광농원의 특색을 구성하는 변인들이지만 오히려 지속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 평가기준에 의해 303개 관광농원을 평가한 결과를 지속중인 222개소와 중단한 81개소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우선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속중인 221개소의 총득점 평균은 69.6 이고 중단한 82개소의 총점 평균이 63.44였다. 전체의 평균점수는 67.93 이었다. 지속성을 같은 경우와 중단한 경우의 평균치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은 평가기준의 변별성이 약하거나 또는 평가과정에서 평가자들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프라빗 모델 분석에서 유의성을 지니는 변수들인 참여농가수, 호당소득, 작목입식다양성, 작목입식특색성, 주변관광자원, 홍보활동, 투자수익, 그리고 신용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평가기준에서의 다른변인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관광농원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농가수를 보면, 평균이 지속적인 경우 3.11이었고, 중단한 경우 3.23이었다. 빈도분석을 표 6에서 보면, 참여농가 수가 많을수록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주위를 끄는 것은 참여농가수가 3호 일 때까지는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오히려 중단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관광농원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개인 혼자이거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통계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작목입식 다양성을 보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작목을 입식한 관광농원이 중단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입식이 지속성에 마이너스 영향

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가지 작목만 집중 입식한 관광농원의 경우 모두 지속적이라는 것을 볼 때, 다양성은 과도한 비용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관광농원에서의 작목입식 다양성이 중요하다면 직접지불제도나 다른 보상책으로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변 관광 자원이 많을수록 관광농원이 중단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주변에 관광자원이 많을수록 경쟁적인 관광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많고 관광농원이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주변에 관광자원이 많은 경우 농촌에 대한 매력을 주목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특성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도 관광농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중단한 관광농원 중 많은 업소들이 숙박업이나 음식점의 역할을 하여 수익성은 좋지만, 관광농원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아 관광농원 지정대상에서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관광농원은 시설 수준이 우수하고 규모가 큰 식당이나 여관을 경영일 경우가 많고, 반대로 수익성이 저조한 농원은 농업적인 면에 치중하는 업소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시정요구가 행정당국에서 계속될 때 관광농원이 지정취소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업체로서 수익성의 제고가 경영의 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적 활용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수익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경우 특히 관광농원이 중단되는 확률이 크므로 관광농원 지정 단계에서 좀더 대표자의 신용도가 비중 있게 선택적이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7은 각각 다른 4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시범조사를 했던 샘플(유승우 외, 1997)을 2001년 확인하여 비교를 하고, 1999년 농림부 등급분류 심사자료와 2001년까지 지속하고 있는 222개 관광

표 6. 유의성 있는 변인들의 빈도 분석

X11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참여농가** (-)	지속	43	79.63	29	74.36	44	67.69	71	71	34	75.56
	중단	11	20.37	10	25.64	21	32.31	29	29	11	24.44

X12	구분	6백 이하		6백~8백		8백~10백		10백~12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호당소득(1)** (+)	지속	5	50	43	69.35	81	68.64	30	71.43
	중단	5	50	19	30.65	37	31.36	12	28.57

X22	구분	0중		1중		2중		3중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작목입식 다양성* (-)	지속	2	28.57	2	100	56	69.14	64	73.56
	중단	5	71.43	0	0	25	30.86	23	26.44

X31	구분	1개소		2개소		3개소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변관광자원* (-)	지속	6	46.15	11	55	204	75.6
	중단	7	53.85	9	45	66	24.4

X41	구분	1건 이하		2건		3건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홍보실적** (+)	지속	13	41.94	67	67.68	141	81.5
	중단	18	58.06	32	32.32	32	18.5

X61	구분	5% 미만		5~8%		8~10%		10~1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투자수익률* (-)	지속	63	67	36	92.31	50	66.67	41	73.21
	중단	31	33	3	7.69	25	33.33	15	26.79

X71	구분	나쁨		보통		좋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표자 신용도** (+)	지속	29	59.2	62	64.6	130	82.3
	중단	20	40.8	34	35.4	28	17.7

tot	구분	50점이하		50~59점		60~69점		70~79점		80~89점		90~99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점수	지속	13	54.17	26	68.42	76	73.08	54	69.23	40	85.11	12	100
	중단	11	45.83	12	31.58	28	26.92	24	30.77	7	14.89	0	0

\* p<0.1    \*\*p<0.05

농원에 대한 자료이다. 정밀한 통계적 분석은 표본의 크기와 심사기준의 미미한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으나, 동태적 추이와 평가심사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1을 보면, 평가기준이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가기준이 타당성 있는 평가척도가 아니라 일정기준을 넘는가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동태적으로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고득점대로 분포가 상향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어 관광농원들의 적자생존 과정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보여주는 시범조사 농원의 분포변화는 표본의 수가 작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시범조사를 통한 분포도와 평가기준의 조정은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 IV. 농촌관광 발전 전략

##### 가. 관광농원의 발전전략

이제까지의 논의와 실증적 데이터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도록 한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정책목표를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1990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1994년 농어촌정비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령에 의거하고 1992년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 국책사업의 여러 목적 중에 농어촌개발의외로 농어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정책목표는 1)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2) 농어가 소득에 기여하며, 3)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4) 관광자원의 생산화, 5) 지역개발촉진, 그리고 6)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있다

표 7. 사례조사 관광농원 1997/2001/1999/2001

시도별	조사대상 1997 (1)	지속 2001 (2)	등급분류 1999 (3)	지속 2001 (4)
광 주	0	0	1	0
대 전	0	0	1	0
울 산	0	0	1	1
경 기	4	4	21	18
강 원	4	4	39	28
충 북	4	3	30	23
충 남	4	4	41	32
전 북	4	3	25	20
전 남	4	2	60	40
경 북	4	2	44	27
경 남	4	2	41	24
제 주	4	2	16	9
전 국	36	26	320	222

(1) 시범조사 농원 샘플 (유승우 외, 1997: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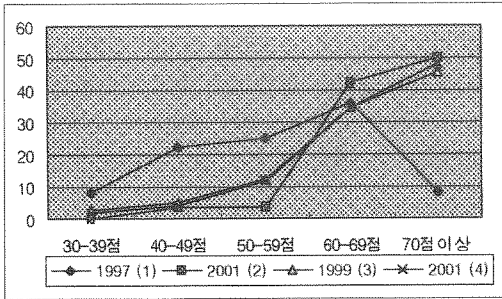
(2) (1) 중 2001 지속 (전화조사 2001.2.)

(3)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1999년 관광농원 등급분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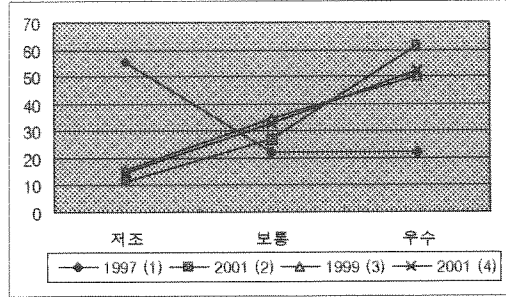
(4) (3) 중 2001 지속중인 농원 (2001.2. 전화면담 결과)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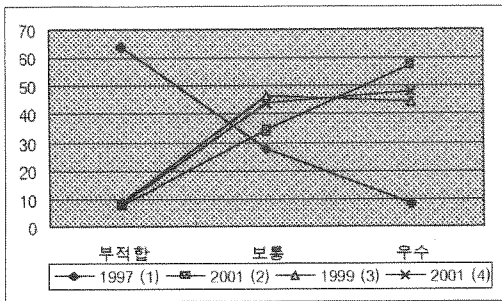
평가 총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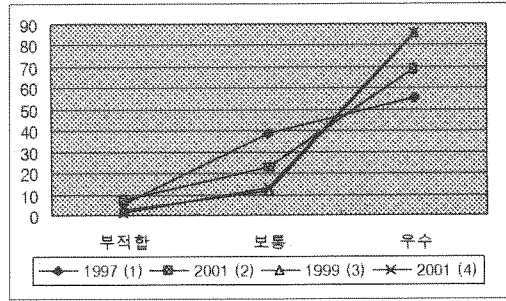
농의소득효과에의 평가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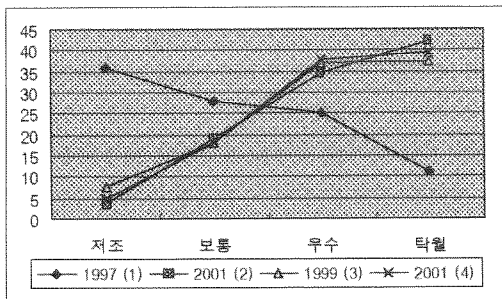
농원 조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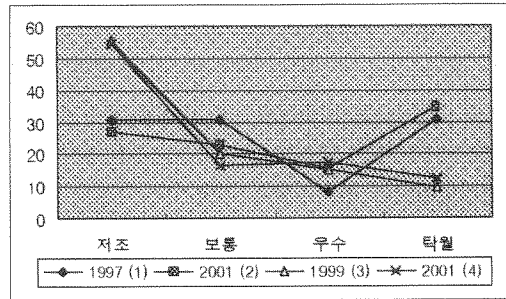
입지조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수익성에 대한 평가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흥보/관광상품개발에 대한 평가점수별 관광농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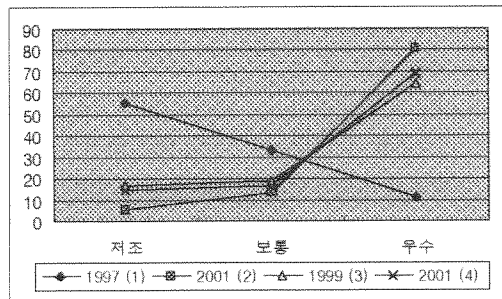


그림 1. 평가 기준에 따른 관광농원의 분포

고 농림부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과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 추진요령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정책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엄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결과를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비교적 논의가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기여를 보면, 표-2)에서처럼 초기 사업자 선정심사 기준에서 공동참여 가산점 부여와 주민 호응도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역사회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도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 당위성과 그 개발 및 육성전략 자체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없이 개발추진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만 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농림부, 1997)에서 구체적으로 개발유형이나 시설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규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서는 항목별점수를 매기고 평점에 따라 신규지구 허가나 기존지구 검토기준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온 바, 이러한 기준이나 점수제도의 검증과 적합성이 표 4)에서 보듯 24개변인들 중 8개 변인들만이 유의수준  $p<0.1$ 에서, 그리고 유의수준  $p<0.05$ 에서는 5개의 변인들만이 관광농원의 지속성에 의미가 있었다는 분석결과는 행정지도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일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실패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한 경우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가 사회나 농어민 자신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이 관광농업의 기본전제인 서비스 제공자 즉 농촌주민의 입장에서,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광농원이라는 주제가 접근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광농원의 지속성 모델을 통한 분석에서 관광농원이 지속성을 가지도록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은 관광농원이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수익성을 제고시켜 지속성을 지니게 하는 것과 같다. 우선 참

여능가를 많도록 하는 것이 관광농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상충되는 이해로 지속성을 낮게 만든다는 것은 관광농원 지정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방식이 문제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지만, 관광농원이 수익성과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 일인경영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통계분석 결과로나 이론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관광농원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관광농원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의 주요 방안으로 도입되는 제3섹터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언급되고 있다. 제3섹터 사업이란 어떤 과제를 가진 지역의 자치단체가 민간부문의 자금, 인력, 노하우 등 소위 민간활력을 도입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장래를 위한 지역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지향하는 선도적인 사업이다. 제3섹터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가능하지만 특히 지역 특산품의 제조와 판매, 관광사업, 등에 도입될 수 있다. 제3섹터 사업의 유형은 1) 민관공동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섹터)가 민간섹터의 활력을 도입하여 행하는 사업, 2) 신규분야사업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선도적인 사업, 그리고 3) 지역이 가진 과제를 해결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를 지니고 지역과 유리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고 또 지역을 기초로 한다. 제3섹터 사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지역경영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단순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광농원의 참여가능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방법이 된다. 지역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고용의 장소를 창출하고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는 등의 공익적인 효과를 추구하면서도 사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며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과 기업성의 추구라고 하는 점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관광농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회사형태를 지니게 된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관광농원 전체를 제3섹터의 사업대상으로 할

지 또는 그 중 일부사업에 한정해서 다른 섹터와 협동사업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다른 섹터와 협동사업화를 모색하여 제3섹터의 투자와 비용경감, 기존 섹터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농가수를 늘리면서 소유와 경영,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게 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할 주제는 잡목입식 다양성과 작목입식의 특색성이다. 작목입식의 특색성이 관광농원의 지속성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은 매력(Attraction)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하고도 중요한 결과이다. 그러나, 작목입식의 다양성에 대한 투자가 관광농원의 지속성에 부(-)의 효과를 준다는 모델 분석결과는 관리비용과 노동력이 중소규모의 관광농원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농촌 아메니티에 대한 논의에 구체적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OECD, 1999, 1994, 1996). 비록 작목입식의 특색성과 잡목입식 다양성이 공공재이고 아메니티를 규정하는 변수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므로 아메니티논의 전체에 연관시키는 것이 비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잡목입식 다양성과 작목입식의 특색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아메니티의 실증적 연구의 구체적 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아메니티 재생산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연관성을 살피기로 한다. 잡목입식 다양성과 경관의 특색성은 흔히 아메니티(rural amenities)로 말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야생, 경작과 관련된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 등을 포함하는 농촌지역의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모든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 가치로부터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효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다.

이제까지 농촌공간에서 농산물생산의 단순한 부산물로 여겨오던 amenities를 농업의 다면적 기능

(multi-functionality)과 비교역적 특성 (non-trade concerns) 중시하여, 농업의 외부경제를 내재화하며,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amenities에 대해 국가가 시장실패에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준거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OECD 국가들에서 농촌 amenities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 존재와 휴가가 늘어남에 따른 수요증가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amenities의 생산자/공급자/관리자 역할을 농촌주민이 맡고 이를 사회가 보상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고전파 경제학의 공공경제학 논의의 연장인 면이 강하다.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 메카니즘 외에 기인하는 효과를 외부경제라 하고 외부비경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공공재의 비효율적 공급을 초래하거나 (Efficiency Problem), 분배에 영향을 끼쳐 형평성 문제 (Equity Problem)을 야기시키며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개입을 (law, tax)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준거를 제공한다. 특히 농촌 amenities의 경우 외부경제가 지역적으로 나타나 효용의 일출효과(Spillover)가 나타나기도 한다. 외부경제의 존재를 감안하여 외부경제를 일으키는 재화의 생산이 계속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재화라고 한다. 그 방법은: 1) 재산권이 정의되고, 강제되고, 거래 가능한 경우 externality의 생산자와 수요자는 서로에게 유익하게 교환할 market incentive를 지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며, 2) externality를 생산하거나 영향받는 집단에게 externality 비용이나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3) 생산과 영향받는 집단들을 동일한 소유권 구조를 공유하도록 한다. externality의 내재화 정책은 amenity를 공급하는 비용/가치와 최적화된 수준의 Amenity 산정에 달려있다. Rural Amenities를 내재화하는 데 있어 감안해야 할 원칙들은: 1) BPP (Beneficiary-Pays Principle) positive externalities에 대해 소비자/수익자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원칙; 2) CPP (Consumer-Pays Principle) Amenity 수익자가 amenity 공급자이기도 한 경우, externality cost를 공급자에게 내재화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amenity 공급의 비용은 생산물에 부가하여 특별요금으로 소비자가 지불한다; 그리고 3) PGP (Provider

Gets Principle) 특히 non-use values 가 지배적인 경우, PGP는 공급자가 amenity 공급에 대한 보상을 지불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농촌공간에서 농산물생산의 단순한 부산물로 여겨오던 amenities를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비교역적 특성을 중시하여, 농업의 외부경제를 내재화하며,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amenities에 대해 국가가 시장실패에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준거로 논의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free-rider 문제는 개인이 어떤 효용을 취득하면서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할 때 생기는 문제를 의미하고 시장실패를 야기시켜 공공재의 과소비와 공급부족현상을 일으킨다. Game 이론에 따르면 효용의 가격을 개인차원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공공재적 amenity는 국가적 차원 개입의 가치준거가 된다. 완전시장은 효율성 있는 자원의 분배를 보장하고 사회의 효용극대화를 이루어내지만, 농촌 Amenities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며 소비는 증가한다. 농촌 amenities가 지역적 외부경제(territorial spillover)를 지니고 있고,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농촌 amenities의 시장내재화를 통해 가능한 한 시장이 amenities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며 Amenitie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접근제한과 같은 독점권 수립, amenities와 농산물을 결합시키는 방안들, 그리고 생산자 네트워크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Amenities와 농촌개발을 같은 맥락에서 함께 파악하여 Amenity를 관리/공급 할 수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촌환경의 질과 긍정적 농업외부경제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은 농촌지역개발에 특히 유용한 개념이다. BPP와 PGP는 도시의 자금을 농촌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OECD 여러나라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과 사례들은 참고가 된다. 그러나 BPP는 수익자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non-point amenity일 경우 그 내재화 시행에 거래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다. PGP는 문화적, 정치적 공감대를 사회에서 이끌어 내야하는 숙제를 지니고 있으나, 많은 사례를 통해 PGP가 농촌 amenity 공급을 증가시키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집단행동 촉진정책, 규제정책,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유관 단체들간 협동, 정보교류 촉진, 경제적 효과와 amenities 증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 그리고 amenities와 효용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와 측정방안 등의 연구 과제들이 amenities 논의 앞에 놓여져 있다. 개인부분과 공공부분 사이에 농촌 amenity 공급에 대한 경쟁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연구의 대상이며, 어떻게 amenity에 대한 사회수요에 대해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또한 숙제이다.

한국에서도 농촌 amenities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1980년대 초에서부터 있어 왔다. UR과 농산물 특히 쌀 시장개방으로 농촌경제가 이중공가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미작중심에서 축산, 화훼, 경제작물 등으로 다원화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정부의 시설투자에 대한 용자는 시장왜곡을 심화시키고 농가부채는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실이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이다. 농외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이 이루어지면서 amenities 이용이 함께 진행된 것으로 그 결과는 다른 정책들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OECD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amenities 논의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선 정확한 개념과 논리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과정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관계, 외부경제의 내재화, 사회 최대효용을 위한 규제정책과 재정적 지원 논리전개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반성을 탐색하는 담론 전개방식이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과학적이고 인내심 있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농촌개발 문제가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관광농원 육성책이 시행되었으나 amenities의 지속적 공급과 수요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책의 가시적 결과와 지원금의 행정편의 위주 집행으로 인해 오히려 농촌 amenities가 훼손되거나 고갈될 상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농촌 아메니티의



예를 보여주는 잡목입식 다양성과 작목입식의 특색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위에서 논의한 맥락에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과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예로 이해된다.

amenities 보다 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홍보활동이다. 관광농원을 지정 받아 1,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영업을 시작할 때쯤이면 융자금과 자기 자금이 모두 투자된 상태에 많은 관광농원이 처하게 된다. 이때 특히 압박을 받는 부분이 홍보 활동이다. 관광농원은 대부분 입지적으로 농어촌 산간지역이나 해안도시 지역에 위치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환경과 시설이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내방객이 없기 마련이다. 통계분석에서도 홍보활동이 관광농원 지속성 여부에 결정적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다. 관광농원의 홍보는 개개 관광농원의 소개라는 소극적 홍보도 있으나 관광농원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홍보되기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홍보효과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free rider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농원의 개별적 또는 관광농원 전체 이미지 홍보활동은 관계 정부 단계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관광농원의 존재가 도시민의 정서 함양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중에서도 홍보활동에 투자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홍보의 공공재적 성격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농어촌 관광사업의 정부차원 지원은 이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농촌이 살기 위해서 국민이 호응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당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교류가 농민, 도시소비자, 정부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계몽차원에서 언론의 협조를 받아 하나의 운동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활동,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 농촌일손 돕기, 도시와 농촌 직거래 장터, 등을 들 수 있다. 홍보와 계몽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맥락에서 관광농원이나 농촌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자의 신용도는 분석결과에서 관광농원의 지속

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개별 관광농원의 매력과 운영상의 노력이 경영자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제공능력에 따른 대출자격에 의해 제한 받거나 심지어는 상환압박에 관광농원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을 통계로서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농촌관광의 소규모 사업자 선정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략 6-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전문가와 기존의 농촌관광 관계자 및 정부대표를 포함한다.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민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분석하며 사업이 실패할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며 사업계획서 수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대개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검증되기 마련이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최종인가를 받는 사업계획이 총 신청한 사업계획서 중 20%미만이라고 한다. 일단 인가를 받으면 경영자의 신용도가 없더라도 정부기금은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벤처사업 육성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림-2)에서 보면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주 내에 지역관광협회의 추천을 받아 6주 내에 초보 심사를 하고 일년 이내에 프로그램 준비와 경제성 분석 및 사업 타당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계획자는 가상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며 보다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가게 되는 실제로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계획안은 스스로가 신용과 성공가능성을 담보로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심사과정과 사업계획서 수립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투자되고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각 사업의 성공이 사회에 끼치는 이익, 고용 창출효과, 지역발전효과, 계획단계에서 조정 가능한 환경보존효과, 등이 비용을 정당화하게 된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지니고 관광농원 육성정책이 이루어졌다면 경영자의 신용도와 담보 능력과 융자자격을 단순하게 연결시키는 지원형태는 행정편의주의 성격이 없지 않아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본 논문에서 얻어진 관광농원 지속가능성과 변인

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들과 그 추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계획수립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간과되어온 사안 중 하나는 농촌관광이 농촌사회를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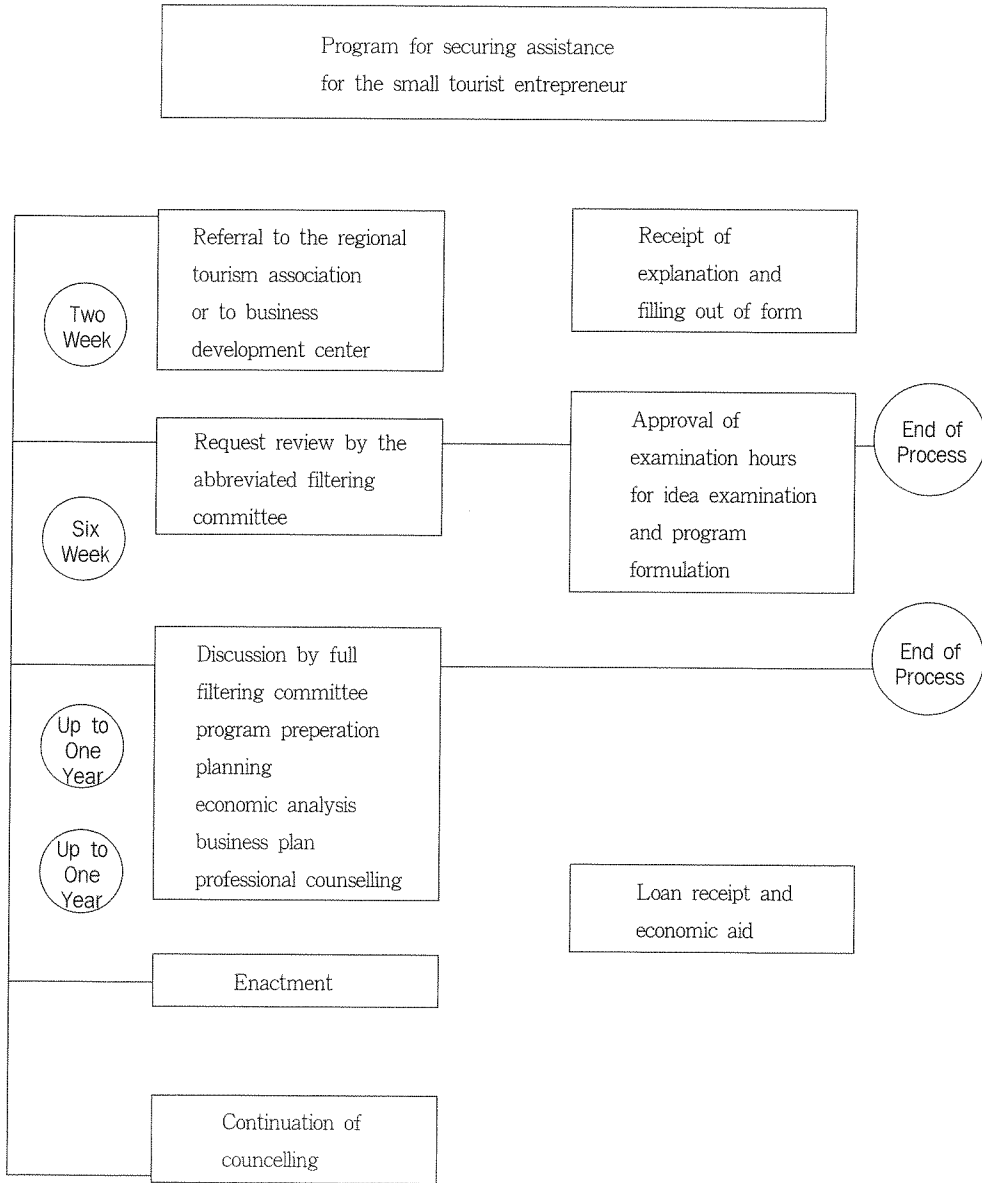


그림 2. 이스라엘 소규모 관광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촌사회에 대한 감안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무대가 되는 농촌지역사회가 지속가능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전제조건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가 중요성을 갖는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을 중시하는 입장에 따르면, 농촌 지역사회는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상실될 때 주변과 통합되거나 소멸한다고 한다(Verhelst, 1994). 베르헬스트는 어떤 지역사회가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1)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스스로의 문화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바탕이 있어야 하고, 2) 가치기준과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치 체계를 전제로 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문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3)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조직과 의사소통, 그리고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방법(Maser, 1997)에서의 지역사회는 1) 사회적 참여를 통해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2) 상호부조의 관계를 유지하여, 3) 경제활동을 통해 고용과 생산활동 외부와의 교역을 하며, 4) 사회관계를 통해 가치와 규범에 대한 교육 기능을 지니고, 5) 사회통제의 수단을 지니고 가치체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합의도출방식과 의사소통,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경제활동도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의거하여 선택되어지고,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경우 주민들의 집단적 행동에 의해 반대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 지방자치 정부의 경우 대표성이 특히 강조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성을 소화하는 기능이 강조된다. 또한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보 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거주공간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다. 농

촌지역사회의 지속성에 있어 주변 농촌공간과의 관계 설정에도 새로운 시각이 강조되고 있는데 OECD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amenities에 대한 논의가 그러하다(OECD, 1999, 1996, 1994).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문화적 수용력(Cultural Capacity): 이는 질적인 것들로서, 문화적 자긍심 또는 정체성(Identity), 외부문화의 선택적 수용능력, 집단행동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기능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그 민주적 합의도출 방식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공간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 인구, 주택, 도로,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는 양적인 성격을 지니며, 특히 농촌지역사회의 경우 농촌 amenities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바탕을 둔 환경보호, 농촌 amenities의 지속적 확대재생산 기능이 비중을 지닌다. 3) 사회제도적 기능: 문화적 수용능력과 공간적 수용능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는 제도적 기능으로 그린벨트 같은 법적 제도와 중앙/지방정부 정책, 그리고 공공부분의 개입, 등이다. 이들 세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룰 때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서로 상승작용(Synergy Effect)을 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 개발전략은 특히 최근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amenities의 농촌관광 연계를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OECD 특히 유럽에서는 농산물 자급화와 농촌지역지원을 위해 가격지지정책을 80년대 초까지 펴왔으나, 농업기술 혁신과 함께 농산물잉여를 낮게되고 농산물수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농산물잉여수출은 국제시장에서 케인즈 그룹으로 불리는 농산물생산 비교우위 국가들과 마찰을 겪게 되었다. 80년대 말경 UR에서 수출보조금 철폐와 농산물시장 개방문제, 그리고 OECD 국가들의 납세자 부담이 이슈화되고, 환경문제와 공해문제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OECD 농업정책은 시장정책에서 후퇴하여 사회구조정책과 지역정책을 통한 농촌개발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OECD 농촌문제는 새로운 패

러다임을 모색하게 되며 rural amenities에 대한 논의의 바탕이 되었다. 정부지원금이 합리적인 시장 보완이기보다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로 이루어져, 수요부족과 운영비용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또 다른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관광개발을 보면, 1) OECD국가들이 농촌개발정책의 공공부문 개입 논리로서 농촌 amenity의 공공재정 성격을 강조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이론적 바탕이 없이 농촌 amenity를 보존 또는 발전시키기 보다 현재 농촌 amenity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상품화하는데 치중하고, 때로는 농촌 amenity를 고갈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 1995년 지자체 시행이후, 각종 지방 문화축제나 amenity를 이용한 개발사업들이 시행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농촌 amenity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농촌 amenity가 시장에서 내재화되어 지속적인 농촌 amenity 공급과 발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농촌 amenity의 생산과 공급이 이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사용가치를 지닌 농촌 amenity의 유지와 공급이 불확실하다. 4) 형평성에 있어서 농촌 amenity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이 일반 사경제 부분의 기업들에 의해 접근성 및 유도소비로 인한 수익이 대기업들의 관광사업으로 전이되고, 농촌 주민들은 농촌 amenity의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장받거나 농촌 amenity 유지와 생산에 대해 형평성 있는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농촌과 도시에서 농촌 amenity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다양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회에 존재하고 증가하는 농촌 amenity에 대한 수요를 검증하고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일부 농촌 amenity를 내재화하여 BPP 원칙을 실현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amenity use-value에 대한 지불이러기보다 접근성과(주차장, 환경부담금 등) amenity 관련 상품 판매(특히, 음식과 특산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amenity 생산자와 유통업자들간의 수익 분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 amenities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상 열거한 사

항들 외에도 경기도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조사와 등록과 같은 기초적인 조사와 실태과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menities 소유권 정립과 독점권 설립을 통한 amenities 시장기능 활성화와 수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농촌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과 용자도 amenities 증진과 지속적 보존을 위한, 또 그러한 맥락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사회적 amenities 공급역할의 보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농촌 amenities에 대한 논의와 진행이 문화적 배경과 인류학적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 있지 않아 경제학적 접근논리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기본바탕인 합리성 추구만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사회 개발에도 꼭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며, amenities 논의의 기본 내용도 유용하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V. 결론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농업의 단 면만을 강조하고 상업화하는 농업관광이나 생태관광이나 녹색관광으로 불리는 것 또한 농촌의 공간활용이나 농업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은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1) 문화적 수용력(Cultural Capacity), 2)공간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 그리고 3) 문화적 수용능력과 공간적 수용능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는 제도적 기능으로 그린벨트 같은 법적 제도와 중앙/지방정부 정책, 그리고 공공부분의 개입이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는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성이 있고, 서로 상승작용(Synergy Effect)을 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진다.(박호균 외, 2000) 이런 맥락에서 농촌이라는 공간과 관광사업을 접목시켜야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비로소 사회에서 당위성과 공익에 대해 정서적 공감대와 논리적 준거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농촌을 무

대로 이루어지는 관광은 농촌관광이라는 개념 위에서 세분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농촌관광 분야에서 농어촌 휴양사업 중 관광농원사업은 농촌관광개발사업에서 금액으로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미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나름대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교훈과 경험은 관광을 통한 농촌발전이라는 더 커다란 주제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착되어온 관광농원의 향후 발전전략 뿐 아니라 농촌관광 전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틀로 프로비트(Probit) 모델을 통해 통계 분석하여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며 관광농원과 농촌관광의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전국 320 개소 기존 관광농원 1999년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2001년 기준으로 추적 조사하여 81개소 취소농원을 파악하여 모집단으로 하였다.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성 있는 변인들은 참여농가수, 호당소득, 특색성, 홍보, 경영자 신용도 였으며, 유의수준  $p < 0.1$ 에서 의미가 있는 변인들은 다양성, 주변자원, 투자수익 이었다.

제시하는 발전전략으로는 제3섹터식 참여와 같은 다양한 지역내의 참여 유도,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한 농촌관광종사자들의 농촌 amenities 생산유지 기능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정부지원 공적자금의 사용이 단순한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이 더 많은 홍보 및 마케팅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자 신용도를 위주로 지원하지 말고 벤처육성식 지원형태를 도입할 것, 등을 언급했다. 미래 한국 농촌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농촌관광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관광이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준거는 농촌의 다면적 기능과 농촌 어메니티의 공공재적 성격에 기인함을 강조하였다.

### 참고 문헌

1. 김경량(1995), 강원도 관광농업의 특성과 개발

전략, 관광농업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강원도.  
 2. 농협중앙회 조사부(1993), 관광농원 경영실태와 발전방향, 조사연구보고 93-10.  
 3. 류선무(1989),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4. 류선무(1995),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부.  
 5. 문옥표(1994),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변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6. 민상기 외(1995),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15.  
 7. 박호균 외(2000), “농촌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선린촌(1967~1999)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Vol. 25, No. 1, pp. 227~242.  
 8. 사카이 겐이치(1998), 『어메니티: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서울: 까치.  
 9. 서중혁(1995), 한국 관광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관광농업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강원도.  
 10.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저(1999), 『녹색관광』, 일신사.  
 11. 유승우(1999), 우리나라 관광농원개발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 발표자료.  
 12. 유승우 외(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72.  
 13. 윤원근(1999), 『한국농촌계획론』, 서울: 대학출판사.  
 14. 이광원 외(1991), 산촌 휴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31.  
 15. 이정전 편(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16. 정지웅(1984), 『한국의 농촌: 그 구조와 개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443.  
 17. 한국관광공사(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18. Bansfield, E.R. and B.P. Helms.(1982), Detecting Multicollinearity, The American Statistician 36: 158-160.  
 19. Mormont, Marc(1987), Rural Nature and Urban Nature, Sociologia Ruralis, Vol.XXVII-1

20. OECD(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OECD.
21. OECD(1994),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to rural development, OECD.
22. OECD(1996), Amenities for Rural Development-Policy Examples, OECD.
23. Ramanathan, R.(1992), Introductory Econometrics, San Diego: The Dryden Press.
24. Sanders, Irwin T.(1985), The community: An introduction to a social system,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25. Verhelst, Tierry.(1994), "The Social dimensions of Culture", Culture and Leader Magazine winter No. 8, Rural development, A.E.I.D.L 260, Chaussee.